

사무엘하 15.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피’ (삼하 15 장 1-37 절)

들어가기

본 장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며 예루살렘을 공격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때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다윗의 모략가인 아히도벨까지 포섭하여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후궁 10명만을 왕궁에 남겨 둔 채 급히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왔고, 이때 다윗의 가족들을 비롯해 성에서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과 가드 사람 잇대와 600 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이때 특별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성에 갖다 놓으라 명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윗은 감람산으로 기도하며 올라갔고, 이런 다윗을 아렉 사람 후새가 맞이하며 위로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벗인 후새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압살롬의 편에 서줄 것을 부탁하였고, 후새는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다윗의 가장 큰 충신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1.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4년 동안 묵묵히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1-12 절)

• 주목 1.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한 3가지

1) 1 절 ->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한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 50 명을 준비하였음!

✧ 동서고금을 망론하고 자신을 위해 호위병을 두고 병거와 말을 모으는 것은 세력쟁탈의 제일 첫 걸음임. (ex. 왕상 1:5 =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도 같은 방법으로 다윗에게 도전!)

2) 2-6 절 ->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

✧ 방법 = 성문 길에 섰다가 왕께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면 마음을 얻음.

•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 3 절: 현 정부의 무능을 비판!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하고!

✧ 4 절: 자신은 약자를 동정하는 정의의 사람임을 강조!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 5 절: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강조!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러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압살롬의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라 정의했나? (6 절)

->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 원/ 마음을 기만하여 도적질하다는 뜻!

참고로 오늘도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진실로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2 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기만하며 공동체로 혼란 가운데로 빠뜨리는 일이 참 많은 듯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라는 어지럽고 백성들은 피곤해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선한 양심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바라며 기도하고, 힘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3) 압살롬은 헤브론을 반란의 거점으로 선택해 반역을 일으킬 것을 계획함! (7-12 절)

▪ 궁금중 1 : 그럼 압살롬은 왜 외가인 그술을 두고 헤브론을 반란의 거점으로 선택했을까?

▪ 이때 압살롬이 미리 계획한 4 가지 전략

- ①. 압살롬은 자신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기 원한다는 핑계를 만들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함! (7 절)
 - 이것은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을 판 것이나 다름 없음!
 - 오늘도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교회를 도구로 삼고,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혹 실수로라도 하나님을 팔거나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 외식했던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자!
- ②. 이때 압살롬은 전령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어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외치게 하였음! (10 절)
 -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미 그의 반역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처럼 만들어 다윗을 돕고자 하는 지방 세력들을 미리 차단시키려는 전략이 아닐까.
- ③.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지도자 200 명을 초청해 함께 헤브론으로 동행하게 함! (11 절)
 - 이때 저들은 압살롬이 꾸민 반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고 기록함!
 - 아마도 압살롬은 저들을 속여 헤브론으로 대려 간 뒤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반역을 지지하고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계락을 세운 것이 아닐까... 따라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시 민심을 얻던 압살롬을 따랐다가 반란에 동참하게 된 불행한 사람들!
- ④. 이때 압살롬은 특별히 ‘길로’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_____’을 데려오게 함!
 - 길로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8km 떨어진 곳. (현재 = 길벳잘라(Khirbet Jala)로 추측.
 -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 측근이자 모사! -> 다윗은 길로에서 정기적인 제사를 관할하게 함.
 - 성경은 다윗이 아히도벨의 세우는 계락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처럼 믿었다고 기록! ‘그 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락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락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삼하 16 장 23 절)
 - 곧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상황!

- 궁금중 2 : 그럼 왜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을까?
-> 이에 대해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

- ①. 밋세바 사건으로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 아히도벨의 아들은 엘리암(삼하 23:34)이고, 엘리암의 딸은 밋세바(삼하 11:3)였음!
 - 곧 다윗으로 인해 자신의 사위손자가 죽고 손녀가정이 깨어진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

참고로 이런 견해를 뒷받침 하는 이유는 길로에서 제사를 주관했던 아히도벨의 평소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우선 충분한 설득력이 있고, + 나아가 Perry, Menahem, Sternberg 등의 학자들은 우리야가 죽기 전에 이미 다윗과 밋세바의 불륜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 - (그 이유 = 우리야가 다윗을 주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요압에게 주라고 불렀다는 것!), 그래서 아히도벨도 이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애초에 알았고, 다윗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는 것!

- ②. 유대 랍비들 ->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모략가라고 불리는 아히도벨이 다윗 정권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결국 압살롬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장악해 보려고 했다는 것!
그러다가 압살롬이 어이없이 죽게 되자 자신도 자살을 선택했다는 견해.

- 4)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합류하면서 압살롬의 반역하는 일은 더 커져갔고, 이에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는 백성의 수도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2 절)
 - ☆ 아마도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외적으로 민심을 얻는데 성공한 압살롬을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압살롬의 반역에 따르는 것이 낫다는 군중심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듯.
 - ☆ 믿음생활은 결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
->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

2.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시 예루살렘 성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3-23 절)

- 1) 다윗은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도망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13-14 절)
 - ☆ 14 절 후반부, ‘..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찢까 하노라’
 - 아마도 다윗은 이것이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생각했을 것!
 - 그래서 대항할 용기보다는 도망을 선택했던 것이 아닐까?
- 2) 이때 다윗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면서도 후궁 10 명은 예루살렘 성에 남겨 두어 성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16 절)
 - 왜 그랬을까?
- 3)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올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①. 왕국에 속해 있던 모든 가족들과 신하들 (16 절)

②.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들 (18 절)

- 이들은 분명 이방인이었으나 다윗 시대에 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
- 또한 이들은 다윗의 방랑시절부터 다윗과 함께 그일라 -> 바란 -> 가드 -> 시글락 -> 헤브론 -> 예루살렘까지 다윗을 따르며 서로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함께 했던 다윗의 사람들일 것이라 추측.

③.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용사 육백 명 (18 절)

- 이들 600 명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 가드에서 다윗이 데리고 온 다윗의 호위병들 (개역개정, 개역한글, Niv. etc.)
 - * 가드 장군 ‘잇대’가 다윗에게 망명하면서 데리고 온 잇대의 용사들 (공동번역, CEV...)
- 공동번역: 18 절, ‘이때가 데리고 온 갓 외인부대 육백 명이 왕 앞으로 지나갔다.’
 CEV. : 18 절, ‘Then David stood there and watched while his regular troops and his bodyguards marched past. **The last group was the six hundred soldiers who had followed him from Gath. Their commander was Ittai.**’

▪ 잇대?

- ✧ 잇대는 블레셋 가드 출신의 장군
- ✧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는 오늘 장면에 처음 등장
- ✧ 아마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얼마 전 자신을 따르는 600 명의 군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와 망명을 선택했던 것으로 추측.

4) 이때 다윗은 자신을 따라 나온 ‘잇대’에게 괜한 전쟁에 휩쓸리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서 평안을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19 절)

- ✧ 학자들은 이때 다윗은 오래 전 자신이 600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드 왕 아기스의 영토에서 살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에게 선을 베풀려 했을 것이 아닐까 추측!
- ✧ 이때 다윗은 잇대와 그의 동포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바라며 축복했음!

5) 이제 ‘잇대’는 도망가는 다윗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말대로 압살롬을 찾아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필 것인지? 정해야만 했습니다.

▪ 그럼 이 순간 잇대가 선택한 결정은 무엇인가? ->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

- ✧ 그 이유는 21 절 주목!
 “ 잇대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 그런데 이 고백은 어디서 본 듯한 고백이 아닌가?

-> 바로 ‘시어머니 를 향한 머느리 의 고백!’

- ✧ 잇대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블레셋에서 망명한 나그네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보았고,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 보고 인정했다는 것!
-> 참고로 다윗은 이런 ‘잇대’에게 자신의 군대 중 1/3 을 맡기며 전쟁의 중심에 서게 함!
- ✧ 우리도 ‘잇대’처럼 당장 눈 앞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순간의 유익을 쫓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3. 다윗은 제사장들이 힘들게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24-29 절)

- 1)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 ✧ 이것은 분명 다윗을 향한 저들의 충성심을 엿볼 수 있는 행동이고, 모든 레위인들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비록 민심은 다윗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아직도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
 - ✧ 그러나 다윗은 이런 언약궤를 다시 성으로 가져다 놓게 하고, 제사장들도 그 언약궤와 함께 성에 머물러 있을 것을 명했다는 것!

- 2)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 25-26 절 말씀을 주목!
 - ✧ 25 절, “...,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 언약궤에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
 -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그 궤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짐!

 - ✧ 26 절, “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 나아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내리신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모든 것에 순종하며 그 징계를 달게 받겠다고 결단했다는 것!

 - ✧ 곧 다윗은 그 순간 단순히 반란의 승패를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인생을 맡기며 순종할 것을 선택했다는 것!

4. 이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람산으로 올랐습니다. (30-37 절)

- 1)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
 - ✧ 위치적으로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산으로 유대 광야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음.
 - ✧ 당시 감람산 위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던 자리가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예배처로 바뀌었음!
 - 32 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Cev. At a Place of Worship)

- ✧ 그런데 이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자신의 이방 아내들을 위해 다시 산당을 지었고, 이후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다시금 그 모든 산당을 무너뜨리고 예배처로 회복시킴!
- ✧ 신약에서 이 감람산은 평소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던 기도처소로 등장!

2) 이때 다윗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기도하며 감람산을 올랐습니다!

- ✧ 어떤 학자 -> 당시 다윗의 상황이 신도 제대로 신고 도망 나오지 못할 만큼 위급하고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라 고멘트!
- ✧ 다른 학자들 ->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여기서 증명된다고 코멘트!
 - 곧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일이나 전쟁의 승리나 왕으로써의 위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또 비록 도망 중이기는 했으나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눈물로 회개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

- ✧ 특별히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함!
 - 아무리 아히도벨이 지혜롭고 훌륭한 모략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시면 그의 모든 계략이 허무하게 될 것을 알고 기도함!
 - 고린도전서 3 장 19-20 절
 - “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3) 다윗이 감람산 위의 예배처에 도달했을 때, 아렉 사람 후새가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32 절)

- ✧ 성경은 후새를 다윗의 벗이라고 소개함!
 - 역대상 27 장 33 절-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새는 왕의 벗이 되었고’
- ✧ 다윗의 벗이 된 후새는 다윗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함께하며, 옷을 찢고 흠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았다! -> 다윗을 위해 옷을 찢고 흠을 머리에 쓴 이가 또 누가 있나?

4) 다윗은 이런 친구 ‘후새’에게 가장 힘든 일을 부탁하였습니다!

- ✧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이중 첩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
 - > 압살롬에게 신임을 얻은 뒤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도록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함
- ✧ 진실한 친구임을 믿었기에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고, 또 진실한 친구이기에 목숨을 걸고 그 부탁을 들어주길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